염불로 정토에 태어나길 원하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지관(止觀)의 설명을 마치고 본문에서는 근기가 약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방편을 제시하고 있다.

"중생이 처음으로 이 대승법을 배워서 바른 믿음을 구하고자 하나 그 마음이 겁이 많고 나약한 이는 이 사바세계에 머무는 동안 스스로 부처님을 항상 만나서 친히 공양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체념하며, 신심을 성취하기도 어렵다고 두려워하여 공부에 대한 뜻을 접으려는 사람은 여래에게는 훌륭한 방편이 있어, 신심을 거두어 보호해 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는 인연으로 타방의 부처님 국토에 태어나서 항상 부처님을 뵙고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경에 설하되 '만약 사람이 오로지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해서 닦은 선근으로 그 세계를 향해 태어나기를 원하면 곧 태어난다' 고 하였다. 항상 부처님을 뵙기 때문에 마침내 물러나는 일이 없고, 만약 저 부처님의 진여법신을 보아서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에 태어나 바른 선정에 머물게 된다."

본문의 이 대목은 이른바 육자(六字) 수행법 곧 '나무아미타불' 염불 수행을 권장하고 있는 대목이다. 염불을 해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바른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특별한 방편을 설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초심자가 수도의 의욕이 감퇴될 때 부처님이 베푼 특별한 방편을 이용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한 것은 하근기(下根機) 중생을 위해서 베푼 설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의지가 약한 중생들도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혀 부처님의 자비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것을 아울러 나타내고 있다.

정토사상으로 분류되는 염불수행도 대승불교의 한 전통으로 자리매김 해 왔는데 기신론에서는 보시에서 지관에 이르기까지 오행(五行)의 수행 밖에 가장 손쉽고 수월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왕생을 주제로 하는 경론에 정토삼부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다. 〈아미타경〉과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 그것이고, 논(論)으로는 세친(世親)이 지은 〈왕생론(往生論)〉이 있다. 이들 경론에는 오직 정토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을 친견하는 방법들을 설하고 있다. 정토종에서는 이들 경론을 삼경일론(三經一論)이라 하여 소의 경론으로 삼아 매우 중요시 여긴다.

이 가운데 〈왕생론〉은 원래 이름이 〈무량수경우파제사(無量壽經優波提舍)〉인데 우파제사(Upadesa)라는 말은 12부로 분류되는 경전 분류의 하나로 논의(論議)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경전을 주석하여 그 뜻을 잘 파악해 놓은 것도 우파제사라 부르기도 하였다. 원위(元魏) 때 보리류지(菩提流支)가 번역한 〈왕생론〉은 일명 〈정토론(淨土論)〉이라고도 하는데 정토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논서이다. 이 논에는 염불 수행을 오념문(五念門)과 오과문(五果門)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하근기 중생들을 위한 설법
자비는 평등하다는 것 밝혀

오념문이란 정토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을 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배(禮拜), 찬탄(讚歎), 작원(作願), 관찰(觀察), 회향(廻向)의 다섯 가지 방법으로 수행을 하여 근문(近門), 대회중문(大會衆門), 택문(宅門), 옥문(屋門), 원림유희지문(園林遊戱地門)의 오과문의 다섯 가지 공덕을 차례로 성취하여 깨달음을 이룬다고 한다.

이 〈왕생론〉에 대하여 중국 남북조시대의 담란(曇鸞, 476~542)이 지은 〈왕생론주〉가 유명하다. 담란은 정토사상의 교리를 집대성하여 정토종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다. 처음에는 삼론학(三論學)에 심취하여 〈중론(中論)〉, 〈백론(百論)〉, 〈십이문론(十二門論)〉을 연구하여 강론을 하다가 〈대지도론(大智度論)〉까지 통달하여 사론종(四論宗)의 종조로 추앙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공적은 정토종 확립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또 정토 안에서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이치를 응용 염불수행으로 극락에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태어남이 업이 태어나는 무생의 생이다" 하여 극락에 태어나는 것이 법신(法身)이 태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보시 실천에 깨달음이 담겼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㊱ 걸인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恭敬乞者品第七(공경걸자품제7)

菩薩思惟。因彼乞者得證菩提。我當以此菩提ø 與一切眾生。以報恩故。我今因施眾生得無比樂。因此樂故得成菩提。如此菩提我當施與乞者。我今因施乞者得於快樂勝解脫樂。因中施樂猶尙如是。況無上菩提。我當捨之施諸乞者。如是乞者其恩甚重無以可報。如此乞者乃能與我作大樂因。若以財寶不足報恩。當以所得無上菩提而施與之。以我福故。願使乞者於將來世亦如我今成大施主。(보살사유。인피걸자득증보리。아당이차보리회여일체중생。이보은고。아금인시중생득무비락。인차락고득성보리。여차보리아당시여걸자。아금인시걸자득어쾌락승해탈락。인중시락유상여시。황무상보리。아당사지시제걸자。여시걸자기은심중무이가보。여차걸자내능여아작대락인。약이재보부족보은。당이소득무상보리이시여지。이아복고。원사걸자어장래세역여아금성대시주。)

번역

구걸하는 이를 공경해야 하는 것에 대한 품 제 7

보살이 생각하기를, "저 구걸하는 이로 인해서 보리(菩提)를 증득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이 보리(菩提)를 회향하여 일체중생에게 베풀리니,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중생들에게 베푸는 보시를 인연하여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얻었고, 이 즐거움이 인연되어 보리를 이루었으니 이와 같이 보리를 내가 응당 구걸하는 이에게 베풀어 주리라. 내가 지금 구걸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인연으로 쾌락과 수승한 해탈의 즐거움을 얻는구나. 보시의 즐거운 인연이 오히려 이와 같거늘, 하물며 무상보리(無上菩提)이겠는가. 내가 마땅히 희사하여 모든 구걸하는 이에게 보시하리니, 이처럼 구걸하는 이의 그 은혜는 심히 무거워 보답할 수 없구나. 이와 같이 구걸하는 이는 나에게 큰 즐거움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을 준 것이다. 만약 재물과 보배로 은혜에 보답하기 부족하면, 응당 얻은바 무상보리(無上菩提)로써 베풀어 주리니, 나의 복이기 때문이다. 발원하건대 구걸하는 이로 하여금 장래 세상에서도 역시 내가 지금처럼 큰 시주를 이룰 수 있게 하소서." 합니다.

해설

〈대장부론〉 7품은 왜 구걸하는 이를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품이다.

고래로부터 모든 수행자의 궁극은 무상보리(無上菩提)을 얻는 것이었다. 보살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한 이가 바로 구걸하는 이라고 믿는다. 보시는 한량없는 즐거움의 원천이며, 그 원천에서 길어낸 생수가 무상보리(無上菩提)라고 믿는다.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이후, 수많은 수행자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갔다. 그러나 뉘가 알았으랴. 그 깨달음이 보시의 실천 속에 감춰져 있었음을! 그러니 탐욕에 물든 이가 어찌 베푸는 즐거움을 통한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랴! 보살은 구걸하는 이에게 보시한 인연으로 해탈의 즐거움을 얻었으며, 또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보살은 이제 깨달음을 얻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게 해준 구걸하는 이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나눠주기에 이른다. 보살의 발원은 내세에서도 구걸하는 이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긍정적인 착각으로

눈높이라는 말이 있다. 눈높이만큼 보인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때마다 눈높이에 따라 가치기준도, 평가점수도 달라지게 되어있다. 정답과 오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게 우리네 삶의 모호성이다. 그러다보니 착각을 정답으로 정당성을 인정 받으려한다.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것이고 내가 선택하면 다른 사람도 박수치며 따라와야 한다.

사랑도, 행복도, 자유도, 품격과 인격마저도 내 눈높이 대로 선택하고 가위질하며 끌어당김과 알아차림을 정당화 한다.

나에게 잘하면 좋은 사람이요, 나에게 못하면 나쁜 사람이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끌어당길 사람이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잊혀져야 할 사람이다. 나와 색깔이 같으면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이요 나와 무게가 다르면 경계해 멀리해야 할 사람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울타리 치고 선(線) 긋기를 즐긴다. 입을 열면 절반이 거짓말이요 몸을 움직이면 9할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행동이다.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도 부부도 형제자매도 원수지간으로 갈라설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보다는 너이어야 하고 너보다는 내가 우선이다. 윤리 · 도덕도 남의 일에는 잣대를 들이밀며 손가락질 하고 내가 저지른 행위는 로맨스로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 스포츠 경기에서처럼 남의 실수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던 시대는 막내린지 오래다. 논을 산 사촌 집에는 혹시나 해서 사람들이 웃음 띤 얼굴로 몰려가지만 논을 판 사촌 집에는 역시나 해서 찡그린 얼굴로 돌아서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마치 물방울 싸움처럼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는 세태이다.

파워게임이 일상 언어가 되어 있지만 힘의 논리는 현대의 움직이는 신(神)이 되어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는 힘의 논리를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바이블의 구절처럼 살아있다.

그러나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되어있다. 인생을 부정적인 착각으로 어두운 눈높이로 살피면 그림자만 보이겠지만 긍정적인 착각으로 밝고 맑은 눈높이로 살피면 세상은 온통 금싸라기 같은 빛줄기로 충만해 있는 것이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마음이 열리면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도 만날 수 있고 어둠도 만날 수 있다. 다만 긍정적인 착각으로 사느냐, 부정적인 착각으로 사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불러들인다.

자신감은 건강과 희망을 키우지만 좌절감은 상처와 온갖 병을 몰고 오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가르치고 있듯 나라는 생각(我相), 너라는 생각(人相), 우리라는 생각(衆生相), 오래 누리려는 생각(壽者相)에서 자유로워져야 참 수행자라 할 터이다.

어차피 정해진 모범 답안이 없는 게 우리네 삶이라면 부정적인 착각보다는 긍정적인 착각으로 어둠보다는 빛을 바라보며 살 일이다.

긍정은 힘을 키우지만 부정은 한숨 쉬는 버릇을 키우기 때문이다. 흔히 노년에 겪게 되는 우울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노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이 상관없이 인생의 황금기는 오늘
균형 · 조화롭게 살아감이 승리자의 삶

내가 필요로 하는 자, 나를 필요로 하는 자가 사라지게 되면 우울증은 찾아 들게 되어 있다.

그럴 경우 의사나 간호사보다도 처방된 약 보다도 우울 증세를 쉽게 치유 할 수 있는 방법은 환자의 마음을 설레고 들뜨게 하는 연애비법이 묘약인 것이다. 서양 의학계에서는 이미 인정되고 있는 우울증 치료 방법이다.

거듭 밝히지만 인생살이에는 정답란이 비어 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착각보다는 긍정적인 착각으로 가슴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 일이다.

내 나이가 얼마이던 내 인생의 황금기는 현재의 오늘이며 나는 어느 곳에 머물던 세상의 중심에 선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 넉넉하게 살 일이다. 유행가 가사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인데' 를 콧노래로 흥얼거리며 여유 있게 살 일이다.

다만, 입장 바꿔 상대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비틀거리는 말과 행동은 사라져야할 터이다. 늙음을 곱게 받아들이는 것도 수행이다. 넘침과 부족함 없이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승리자의 삶임을 잊지 말 일이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0,000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